



셋강(6호F), 박형태 / 성일건축사사무소

흐르는 장강이 만들어준
 또 하나의 지류, 강서 하구언
 시간의 흐름이 이어지듯
 순간들의 실상은 흘러가고
 그 아름다움이 순간 굴절된 채
 여기 허상처럼 걸려있는 듯 하다